

##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발간에 즈음하여

전무이사 이 후 성



한국고분자학회의 전무이사라는 중책을 맡은지도 어느덧 한 해가 되고 보니, 그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는 물론 스스로의 무능함을 한탄한 때도 많았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학회를 대과없이 운영하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고분자학회도 연륜을 더하여 이제는 틴에이저가 되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이 1억원을 돌파하는가 하면, 학회지 및 총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와 질에 있어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IUPAC 국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오는 1996년에는 IUPAC Symposium on Macromolecule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러한 시점에서 본 학회의 오랜 숙원이던 학술 논문지와 기술/뉴스지를 분리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우기, 우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 한 시대의 분기점에서, 고분자학회가 맡고 있는 짐이 한층 더 무거움을 느끼면서, 이번의 분리 발간이 더욱 뜻깊다는 바를 생각하게 된다. 처음에 간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망설이지 않은 바도 아니나, 일단 분리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그 안이 이사회와 총회에서 인준되자, 안태완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간사들이 앞으로의 어려움을 걱정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뻐하였다.

한국고분자학회 회원의 구성을 보면 그 어느 학회 보다도 여러가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학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학회가 이토록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임 임원 여러분의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산업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뒷받침 되었다는 점을 빼어 놓을 수 없다. 산업계 회원들의 호응은 재정적 후원도 중요하지만, 총회에서 논문 발표장을 입주의 여지없이 매우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광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기술/뉴스지와 학술 논문지를 분리 발간하게 된 것은 하나의 작은 도약이라 생각하고 싶으며,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도약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는 영문지의 발간, 산학 협동의 증진,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일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회원이 고분자학회가 나의 학회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합심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헌신적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